



조성주 서예가이자 전각가는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하이퍼 전각기법으로 <법화경> 7만자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서예+회화+디자인... 법화경 하이퍼전각

문화인 조성주 전각가

“법화경 전각은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무용가 전수향 씨의 권유로 법화경을 보게 되었고 이를 작품으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2000여 일의 작업 시간 동안 죽을 고비를 두 번이나 넘겼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7만여 글자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동안 패닉 상태였던 제 마음은 환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예가 조성주 작가는 지난해 ‘2000일의 고행, 국당 조성주 작가의 완각 하이퍼전각법화경-불광展’을 열어 주목을 받았다. 서예 회화 디자인을 결합한 하이퍼전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그의 작품은 현재 제동법화경에 봉안되어 많은 불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약 5톤의 석인재(石印材)로 작업한 전각을 설치미술로 완성해 전시를 꾸몄습니다. 사방 1센티미터 크기에 글씨를 새기고 이를 여러 개 모아 사방 10센티를 만든 후, 또 다시 조립해 폭 1미터 이상 6미터 크기로 대형 작품을 만들었죠.”

전각을 설치미술로 구현한 이 작품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후 그는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작가가 되었다. 하지만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은 녹록치가 않았다.

“제가 2007년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불자이신 전수향 선생님의 권유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불교미술의 흐름을 바꿔놓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작업이었는데 작품을 하는 동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차를 팔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는데 이상하게도 오른손은 다치지 않아 계속 작업할 수 있었죠. 이후 몸이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는데 또 전시 6개월을 앞두고 큰 돌에 머리를 박는 사고가 일어

요. 그때도 오른손은 다치지 않아 계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때서야 제가 모르는 어떤 신비한 힘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그의 작품은 전시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는 법화경사 5층에 봉안되어 불자들에게 법화경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 “당시 2주 동안 전시를 했고 전시가 끝나갈 무렵에는 작품을 보관할 창고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시 이틀을 남겨 놓고 법화경사 봉안이 확정

2000일 고행으로 완성한 전각

법화경사에 상설 전시 ‘눈길’

법화경 주요 구절로 ‘보리수’ 완성

10월 17일~23일 서천문화원 전시

되었죠. 너무 기적 같았고 많은 불자들에게 법화경의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죠. 이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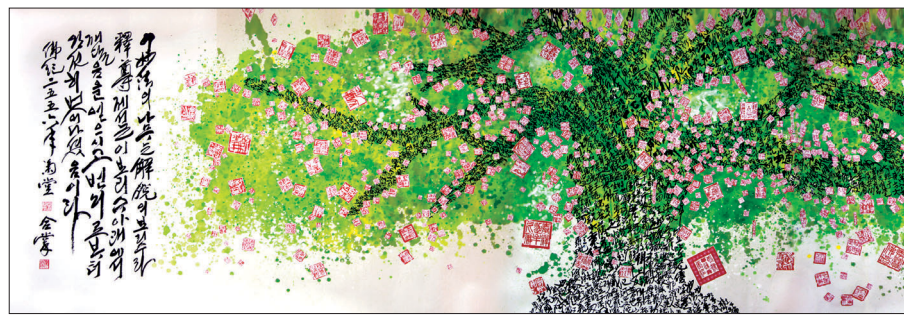
1997년 금강경 전제를 돌에 새긴 ‘전각 금강경’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던 그는 이후 법화경 작품까지 완성하면서 서서히 불자로 몰들어갔다고 한다. “사실 처음부터 불자는 아니었어요. 서예를 하며 다양한 글자를 새기다 보니 불경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작업을 하다보니 마음의 수양이 됐고 서서히 불교에 몰들어

갔어요. 지금은 법화경을 다양한 형태로 대중들에게 알려가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는 10월 17일~23일 열리는 서천문화원 초대전에서도 법화경의 주요 구절을 작품으로 옮겨 완성한 가로 9미터 세로 2.3미터의 대형작품 ‘보리수’ 등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대구 팔공산 동화사의 법화경 석각 벽화도 작업중이다. 2017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벽화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디자인한 가로 21미터 세로 2.5미터 법화경 7만자와 광화 20세트로 구성될 예정이다. “법화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불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서천문화원 전시에서는 법화경의 좋은 구절들만 발췌해 보리수 나무로 완성해보았죠. 동화사 작업도 현재 절반 정도는 끝난 상태인데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다큐멘터리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완성되면 다류를 공개할 수 있는 매체를 찾고자 합니다.”

서예와 전각 디자인을 결합한 하이퍼전각으로 새로운 예술을 보여준 조 작가는 앞으로도 꾸준한 시도를 통해 대중들에게 좋은 작품을 선보이고자 한다. “최근 전각 작품을 많이 선보였지만 사실 제 본분은 서예가죠. 그러니 서예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의 작업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불경이 무궁무진한만큼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구성해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법화경의 주요 구절들을 전각으로 새겨 보리수 나무로 형상화한 조성주 작가의 작품 ‘보리수’

인간의 온갖 시비 일시에 부서지네

대각국사의 출가 사찰

영통사(靈通寺)는 북한에 있는 절이다. 소재지는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 오관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1027(고려 현종 18)년에 창건된 사찰이다. 고려는 1036년(정종2)에 독특한 법을 하나 만들었다. 왕이 왕자가 4명 이상일 경우 한 왕자의 출가를 허락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통사에 계단을 설치하고 경율(經律)을 익히는 도량으로 삼았다.

1055년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대각국사 의천스님(1055~1125)도 영통사로 출가 했으며 입적 후 영통사에 사리를 봉안했고 비도 세웠다. 대각국사비는 지금도 남아 있는데, 비문은 김부식(金富軾)이 썼다.

영통사는 조선조 이후 퇴락하여 당우는 모두 허물어지고 대각국사비와 탑이 폐허 속에 남아 있었다. 2005년 남한의 대한불교천태종과 북한이 영통사를 복원했으며 매년 대각국사의 열반일(10월 5일)에 맞춰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이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필자는 2007년과 2012년 영통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개성 시내에서 버스로 한 시간 남짓 가면 오관산의 아름다운 연봉들이 나타나고 몇 개의 산골마을을 돌아 산으로 들면 영통사가 나타난다. 널찍한 마당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대각국사비인데, 풍상에 마모되어 글자를 판독하기는 어려운 지경이다.

영통사는 옛 자료를 토대로 복원되었는데, 왕과 왕실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던 절답게 회랑을 두른 당우들이 하나같이 격조 있다. 물론 산이 에워싼 경지도 매우 아름답다.

고려시대 왕실의 보호를 받던 영통사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찰이었을 것이다.

“이제 능사(能事)를 겨우 끝냄으로써 훌륭한 스님들을 맞이해 열람하니 천 손가락이 책을 펼쳐 넘기고, 육종(六種)의 소리가 놀라게 진동합니다. 앞뒤려 원한건대, 임금님의 덕이 더욱 빛나서 사방의 노래로 전파되어 찬양하고, 나라의 기강이 다시 굳어져 한 가지 일도 잘못됨이 없으며, 아래로 못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편안히 재활(再活)하듯 하여지이다.”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일부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文集)> 제41권 석도소(釋道疏)편에 실린 이 글의 제목은 ‘영통사를 보수하고 나서 대장경(大藏經)을 피람(披覽)하는 소’이다. 영통사에 보관된 <구사론>이 유실된 것이 많아 아를 보완하는 불사를 마치고 쓴 글이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④ 영통사 ①



조선조 이후 퇴락했던 개성 영통사는 2005년 천태종에 의해 복원되었다.

시에 담은 깨달음의 풍경

백운거사 이규보가 영통사에서 대장경을 열람하고 불교 공부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영통사에서 적지 않은 시를 쓰기도 했을 것이다. 그의 문집 <동국이상국집> 제11권에 있는 고을시 한 수가 전한다. 제목은 ‘영통사(靈通寺)에 놀면서’다.

선로영우접취미(線路의涯接翠微)
불번문사축승귀(不煩問寺逐僧歸)
도산재청계청향(到山才聽清溪響)
용파인간백사비(龍破人間白是非)

실 같은 길 구불구불 산허리에 닿았는데 스님을 따라 가니 번거롭게 절을 물을 것이 없네.
산에 이르자마자 맑은 시내 소리가 들려오니 인간의 온갖 시비 일시에 부서지네.

스님과 동행하여 영통사로 가는 동안의 정취를 한 편의 시로 그려 낸 것이다. 지금도 영통사 가는 길은 구불구불 산허리를 돌아간다. 우거진 숲길은 아니지만 다복술이 등성등성 하다. 스님과의 동행은 아니고 버스를 타고 도착하면, 절 옆을 흐르는 계곡에서 들리는 맑은 물소리가 들린다. 이규보의 시대와 다르지 않은 물소리일 것이다. 다만, 시절 인연이 그때와 달라 ‘온갖 시비를 일시에 부서지게’ 하지 않으니 상념이 많을 뿐이다.

지역진기시(地僻塵機息)
누고서기미(樓高暑氣微)
조수명경하(鳥隨鳴磬下)
승진도종귀(僧還磬鐘歸)
이석운생수(移石雲生袖)
간송로적의(看松露滴衣)

추상산과속(秋霜山蘂熟)
경차구암비(更此 峯扉)

땅이 궁벽하니 티끌 마음 쉬어지고
다락이 높으니 더운 기가 가시네.
새는 밤때에 울리는 경쇠소리따라 내리고
스님은 저녁 중에 맞추어 돌아온다.
돌을 옮겨 앉으니 구름은
소매에서 일어나고
술을 우리러보니 옷자락에 이슬이 드네.
가을서리에 산과월이 익을 무렵
다시 이 바위 문을 두드리리라.

<동문선(東文選)> 제10권에 실린 이 오언율시(五言律詩)는 변계량(卞季良 1369~1430)의 작품이다. 제목은 ‘차영통사벽상운(次靈通寺壁上韻)’. 변계량의 시대만 해도 이미 영통사에는 많은 선비들이 찾아와 시를 남겼을 것이다. 그래서 변계량도 절의 벽에 걸린 시를 보고 그 운을 따라 이렇게 맑고 청아한 시를 남겼다.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인만큼 유학을 익히는 선비들도 불교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다. 그래서 절의 풍경을 단지 풍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묘사하는 조예를 가졌을 것이다. 워낙 시문에 능했던 변계량이라 하지만 영통사의 풍경에서 발견하는 적멸의 즐거움은 대단하다.

고요한 산사에 저녁이 찾아오고 배고픈 새가 절로 날아드는 시간에 스님들이 돌아온다. 오관산은 바위산인데 바위와 구름이 그리고 소나무가 어우러져 사람을 사람 아닌 듯 느끼게 만든다. 그러한 진경 속에 노닐다 보니 훗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것이다.

창간 20주년

since 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0515-8888-09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12월 / 6절

- 12절(벽결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 원
- 이천부 이상 @ **900** 원
- 200부 이상 @ **1,000** 원
- 규격: 25.8cm × 26.5cm

6절(벽결이형 大)달력

- 삼천부 이상 @ **1000** 원
- 이천부 이상 @ **1100** 원
- 200부 이상 @ **1,200** 원
- 규격: 30.5cm × 31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100부 @ **800** 원 • 매수: 18장 @ **650** 원
- 규격: 9.5cm × 13.4cm

미니달력 200부 이상

- 100부 @ **600** 원 • 매수: 16장 @ **450** 원
- 규격: 8.9cm × 9.5cm

금띠지 등표

- 정가 1,000원
- 200매 이상 @ 700원
- 규격: 3.5cm × 70cm

만사대길·소원성취·학업성취
사업성취·삼재소멸 中 택 1

상단 뒷편에 양면테잎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부착가능하며 하단부분은 생,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화인가 **4,000** 원 (50장 이상) 정가 **5,000** 원

- 68cm × 195cm (먹색, 적색)
- 전통재래한지